

- ★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전1:3)
- ★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자신의 수고하는 일에 선한 것을 보는 것이, AWP)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전 3:12-13).

복습.

지혜문학: 제3의 신학 (아브라함-시온 & 모세-신명기 vs. theology from below)

잠언: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규칙성, 영속성=>지혜. 하느님의 뜻.

욥기: 악의 문제.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전통신학에 대한 도전.

전도서: 삶의 유한성. 보다 근본적인 물음.

전도서란? 전도교본? 히브리성서: 코헬렛--"gathering, congregation" (1:1, 2, 17; 7:27; 12:9, 10).

칠십인역: Ἐκκλησιαστής(< ἐκκλησία); 영어 Ecclesiastes >>preacher, teacher.

- ✓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중을 모으는 일과 관계=>preacher, 6개 모든 한국어 번역에 쓰임.
- ✓ 가르칠 목적으로 학생들을 모으는 교사를 의미=>teacher, 대부분 현대 번역에 반영

전도자(개역한글, 표준새번역)/설교자(공동번역)

1:1 고유명사

12:8 보통명사+ 관사 (הַמְדַבֵּר ; ὁ Ἐκκλησιαστής)

7:27 (MT: 고유명사; LXX: 보통명사+ 관사)

최종 편집자의 입장과 전도자의 신학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편집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12:13// cf. 3:14)” :מִדְבַּר־לִבְּךָ הָיָה>>ὅτι τοῦτο πᾶς ὁ ἄνθρωπος (lit., this [thing] is everyone. cf. 3:13; 5:18; TNK: For this applies to all mankind.). 이 말은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의 선포라기보다, 논리적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말이다. “말의 마침이며 모든 것을 들었다”(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표준새번역) 이후의 말이다.

헤벨(הֶבֶל; 전 1:2...)=>롬 8:20 (ματαιότητι). 헤벨: "the impermanence of humankind in the face of death" =>mortality (3:19)

루아호(רוּחַ)의 의미. 1) 바람/허무—Prov 11,29; 27,16; 30,4; Job 15,2; 16; 2) 영(靈) Job 12,10; 32,8; 33,4; 34,14; Prov 15,4; 16,2; Pss 104,29; 146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רוּחַ)과 기운을 거두실찌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 가리라(욥 34:14-15)

1. 죽음은 모든 것을 무(無, הֶבֶל)로 돌린다. (32x)

-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הֶבֶל 1:2; 12:8).
-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1:13).
-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1:18).
-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지 오렐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הֶבֶל)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2:16-17).
-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이 없음은 모든것이 헛됨(הֶבֶל) 이로다(3:19).
-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身後事) 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3:21-22// cf. 10:14)
- 헛됨(הֶבֶ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러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6:12).
-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8:14). cf. 8:12-13
- 육체(MT, 肉)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나니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표준새번역]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הֶבֶל 12:7-8).

길가메쉬 설화, 창세기 2-3장;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창 3:22).

2. 하나님의 행사는 알 수 없다.

-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3:11).
-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5:2).
-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8:7)
-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찌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찌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8:17).
-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 하는 자가 일반이로다(9:2).
-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9:11).
-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와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빠져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11:5-6)
-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굵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험푼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7:13-14).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하나님의 뜻(?)—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운명을 알고, 극복하려는 노력. 그 헛됨을 가르침. 하나님과의 personal relationship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하나님을 (기도든 탄식을 통해서든) 직접 부르는 대화형식을 피하고 있다. 이것이 옳과 다른 점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신의 영역—장래를 안다(cf. 6:12; 8:7; 10:14)=>인간의 한계, 고로=>

3. 인생을 즐기라.

-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전1:3)
-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자신의 수고하는 일에 선한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전 3:12-13// cf. 2:24).
-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2:24).
-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5:18). => 8:15
-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찌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9:9).

4. 그러나 함부로 살지는 말아라.

-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12:1).
-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12:13-14).
-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나 내가 정녕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8:11-13).

교훈

1. 전도서 12.12 사태—“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는 끝까지 공부한 사람의 말. 공부 안하는 것/도중하차 하는 것에 대한 핑계로 쓰일 수 없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피곤한 것. 전혀 하나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에 대해 함부로 짚어대지 말라는 뜻.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생명(חַיִּים, spirit)과 죽음(בְּרִית, vanity, mortality) 만큼이나 먼 거리가 있다. 고로, 현실적인 것에 힘쓰라.
2. 허무주의나 쾌락주의와는 달리,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일, 곧 삶을 즐기고 하는 일에 선함을 인해 기뻐하는 것.
3. 비록 우리가 펼치고 있는 평신도 신학운동이 당장은—어쩌면 영원히—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는 일의 선함을 보고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 소명임을 깨닫고 즐거워한다.